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체형인식 및 외모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양지원
경일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subjective body shape perception and appearance satisfaction on employment stress

Ji-Won Yang
Division of Nursing, Kyungi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체형인식과 외모만족도가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경북 소재 K 대학교 2학년 간호 대학생 130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일반적 특성 중에서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전공만족도, 학점 그리고 건강 상태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관적 체형인식, 외모만족도, 취업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취업스트레스는 주관적 체형인식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외모만족도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주관적 체형인식($\beta=0.23$, $p=.018$), 외모만족도($\beta=-0.25$, $p=.010$)가 취업스트레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총 설명력은 27%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주관적 체형인식과 외모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둔 통합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research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impact of nursing students' subjective body shape perception and appearance satisfaction on employment stress. An analysis of data collected from 130 second-year nursing students at K University in Gyeongbuk showed that major satisfaction, grades, and health status affected employment stress.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subjective body shape perceptio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ress reveal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mployment stress and subjective body shape perception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appearance satisfaction. The main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were subjective body shape perception ($\beta=0.23$, $p=.018$) and appearance satisfaction ($\beta=-0.25$, $p=.010$), and both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27%. The study shows that an integrated stress management program should be developed and that an integrated management program that focuses on increasing nursing students' subjective body shape perception and appearance satisfaction is required to reduce nursing student employment stress.

Keywords : Nursing Student, Subjective Body Shape Perception, Appearance Satisfaction, Employment Stress, Major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Ji-Won Yang(Kyungil Univ.)

email: ykveer@hanmail.net
Received November 2, 2023
Accepted February 6, 2024

Revised December 6, 2023
Published February 29, 2024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경기침체 및 글로벌 금융위기, COVID-19 등으로 인해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많은 대학생이 취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1].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COVID-19 확산 이전까지는 월 30만 명 청년실업자로 7.0%로 유지하였으나 [2], 2020년 6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0.7%로 1999년 6월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았으며 청년실업자는 45만 1000명에 달했다.

최근 간호학과도 입학정원과 졸업생 수의 증가로 인해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3], 원하는 병원에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고시에 합격해야하는 중압감으로 인해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4].

취업스트레스(job-seeking stress)란 대학 졸업 예정이거나 최근 졸업한 사람이 최초의 취업 준비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로, '미취업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도 한다[5].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에서 취업스트레스의 비중은 가장 높으며, 이들 대학생이 경험하는 취업스트레스는 불안, 분노, 우울감 등의 정서·심리적 장애를 유발하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7].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심리적인 요인에 대하여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Park, Bae & Jung[8]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다루었고, Choi & Lee[9]는 심리적 증상, 신체증상과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Shin & Cho[10]는 구직기술,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의 관련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취업과 관련하여 면접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취업스트레스와 외모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5,11-15].

주관적 체형인식은 체형에 대한 아름다움, 사이즈, 형태 등에 대해 느껴지는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를 통합적으로 개념화한 것으로 신체에 대한 자기 생각과 인식, 감정을 말한다[16]. 최근 다양한 언론매체와 패션 산업은 마른 몸매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어 말라야만 사회적인 인정과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사고가 만연해 있다[17]. 이러한 외모에 대한 획일화되고 왜곡된 판단 기준은 주관적 체형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게 만들 수 있다[18]. 이와 더불어 건강보다는 마른 몸매를 추구하는 여성의 경우 인식된 기준

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느끼게 되면 상실감을 겪게 되고 이는 자존감을 낮추는 원인이 되어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등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갖게 된다[19-21]. 그러나, 주관적 체형 인식이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고 더불어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체형인식이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므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체형인식이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첫인상부터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외모가 후광이 되어 같은 일을 해도 외모가 뛰어난 사람에게 더 좋은 평가가 내려진다[22]. 더불어 외모가 현대사회에서 자본 또는 경쟁력의 한 요소로 인식되고, 외모에 대한 평가가 삶의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23]. 그로 인해 취업을 위한 외모 관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4]. 그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는 병원도 서비스업종이라 여겨지고 있으므로 간호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능력을 개발시켜야 함은 물론 환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자로서 특정한 감정이나 행동, 적절한 외양까지도 갖추어야 한다[22]. 외모 만족이란, 자신의 신체 이미지가 외부로 표출되어 상대방이 좋은 인상을 받게 하고 보다 매력적인 모습으로 인정받는 각각의 긍정적 태도 또는 외모에 대해 만족하거나 불만족한 느낌의 정도를 말한다[24]. 한 연구에 따르면, 외모만족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녀 대학생 모두 외모에 대한 관심도는 고학년일수록, 취업 불안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남녀 대학생에게 외모 요인은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4]. 따라서 취업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외모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취업스트레스와 외모만족도는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25].

현재까지 연구에서는 주관적 체형인식, 외모만족도, 취업스트레스 각각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어 왔지만, 이 변수들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 결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체형인식, 외모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관계 및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함으로써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 중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취업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경북 소재 K 대학교 2학년 간호 대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체형 인식 및 외모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취업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관적 체형 인식, 외모만족도,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체형인식, 외모만족도,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주관적 체형인식, 외모만족도, 취업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 방법

2.1.1 연구 설계

경북 소재 K 대학교 2학년 간호대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체형인식과 외모만족도를 파악하여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1.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북에 소재한 k대학교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연구 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를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3.1.3[2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선행연구[27]를 참고하여유의수준 .05, 검정력.8, 효과크기 .1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소표본은 109명으로 산출되었고 중도탈락률 25%를 고려해 총 135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충실한 5부를 제외하고 130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1.3 연구 도구

1) 주관적 체형인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관적 체형인식 척도는 Cooper 등(1986)[28]이 체중이나 체형에 관한 관심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해 개발한 BSQ(Body Shape Questionnaire)이다. BSQ는 이상적 체중으로 인한 현재 체중의 왜곡에 기인한 부정적 정서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질문들로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비만의 두려움 14문항, 노출에 대한 두려움 6문항, 구토 경험 2문항, 체형 불만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6점 Likert 척도로 부정 문항은 역산처리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체형에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Cronbach α 계수는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7이었다.

2) 외모만족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외모 만족도 척도는 아동과 청소년의 외모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Mendelson & White[29]가 개발한 신체적 존중감 척도(Body Esteem Scale)를 Sim[30]이 재편성한 것이다. 외모 만족도 척도는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태도와 감정을 측정하기 위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만족도의 측정을 위해 5점 Likert형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를 사용하였다.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외모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31]의 연구에서 사용한 외모만족도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7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3) 취업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취업스트레스 척도는 Jeong[32]이 개발한 취업스트레스 척도이다. 이 척도는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5문항이며 '취업이 불가능할 것 같아 두려운 생각이 든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걱정된다.', '취업을 하지 못해 부모님께 부담을 주는 것 같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정되어 있으며, 11개의 문항은 정방향으로 채점하고, 4개 문항은 역 채점한다. 응답 가능 점수 범위는 15점에서 7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Jeong[32]의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2.1.4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위하여 2020년 11월 2일부터 2020년 11월 6일까지 대면 기간을 통해 경북 소재 K 대학교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여 참여에 동의한 연구대상자 135명에게 온라인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연구대상자는 1학년 같은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다른 학년에 비해 비교적 낮을 것 같아 제외하였으며, 3, 4학년의 경우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부담감 등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을 것을 우려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온라인 설문지는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설문을 완료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130명의 설문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의 목적, 효과, 방법 및 연구로 얻은 개인정보를 연구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을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연구로 얻은 정보를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철회할 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 작성이 끝나기 전까지 대상자와 함께 있었으며 응답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설문자료를 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자료를 직접 처리하고 관리 및 분석하였다.

2.1.5 자료 분석 방법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관적 체형 인식, 외모 만족도, 취업 스트레스 정도는 빈도와 평균 및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는 t-test(two sample t-test)와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 사후검증(Scheffe test)으로 확인하였다. 주관적 체형 인식, 외모 만족도, 취업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알아보았으며, 주관적 체형 인식과 외모 만족도가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으로 확인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K 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전체 130명 중에서 남자는 19명(14.6%), 여자는 111명(85.4%)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만 20세 이하는 99명(76.2%)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주 형태는 부모님과 거주가 78명(60.0%), 전공 만족도에 대해서 만족은 60명(46.2%), 학교생활에 대해서 만족은 59명(45.4%), 학점에 대해서 3.0~4.0이 83명(63.8%),

건강 상태에 대해서 좋음은 53명(40.8%)으로 가장 많았다. 진로희망으로 상급종합병원희망이 100명(76.9%), 종합병원은 25명(19.2%), 의원은 1명(0.8%), 기타는 4명(3.1%)으로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주관적 체형인식, 외모만족도, 취업 스트레스 정도

대상자의 주관적 체형인식의 평균 점수는 95.33±36.72점, 외모만족도 평균 점수는 62.89±8.94점, 취업 스트레스는 40.95±8.65점 이었다(Table 2).

Table 2. Level of Subjective perception of body,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and Employment Stress

(N=130)		
Variable	M±SD	Min-Max
Subjective perception of body	95.33±36.72	6-204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62.89±8.94	5-100
Employment Stress	40.95±8.65	5-75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체형인식, 외모 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주관적 체형인식은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F=4.01, p=.009) 사후검정결과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주관적 체형인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외모만족도도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4.89, p=.003) (Table 2), 사후검정결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건강상태가 보통인 그룹보다 외모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는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02, p=.003), 사후검정결과 전공만족도가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는 성적에 따른 유의한 차이도 보였으며(F=4.2, p=.016), 사후검정결과 성적이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는 건강상태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4.89, p=.003), 사후검정결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Difference in subjective perception of body,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and Employment Stress

(N=13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 ± SD	Subjective perception of body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Employment Stress	
				M ± SD	t or F(p)	M ± SD	t or F(p)	M ± SD	t or F(p)
Gender	Male	19(14.6)	1.85 ± 0.36	85.53 ± 34.75	-1.26 (.198)	64.74 ± 9.60	0.97 (.342)	37.37 ± 9.63	-1.98 (.073)
	Female	111(85.4)		97.01 ± 36.93		62.58 ± 8.83		41.57 ± 8.36	
Age(year)	≤ 20	99(76.2)	1.27 ± 0.51	93.37 ± 35.84	1.24 (.294)	63.00 ± 9.47	0.04 (.963)	41.08 ± 8.27	0.65 (.524)
	23~24	27(20.8)		98.70 ± 40.56		62.63 ± 7.63		39.89 ± 7.44	
	25~30	4(3.1)		121.00 ± 25.76		62.00 ± 1.41		45.00 ± 8.65	
Residence	living with parents	78(60.0)	1.58 ± 0.79	91.78 ± 38.07	1.09 (.34)	63.72 ± 9.44	0.87 (.421)	41.29 ± 8.33	0.315 (.738)
	Dormitory	28(21.5)		97.86 ± 31.31		61.32 ± 7.93		39.82 ± 9.70	
	Rented Room	24(18.5)		103.92 ± 37.85		62.04 ± 8.40		41.17 ± 8.62	
atisfaction with major	Very satisfied	28(21.5)	2.20 ± 0.92	85.96 ± 39.61	1.69 (.156)	65.96 ± 10.36	2.36 (.057)	36.79 ± 9.58	3.018 (.02) n/a
	Satisfied	60(46.2)		98.67 ± 33.51		62.53 ± 8.50		41.80 ± 7.75	
	usual	34(26.2)		91.15 ± 35.02		62.76 ± 7.50		41.85 ± 8.46	
	Unsatisfied	4(3.1)		121.50 ± 53.62		55.25 ± 9.25		49.50 ± 5.92	
	Very unsatisfied	4(3.1)		120.25 ± 49.20		55.50 ± 10.34		41.25 ± 10.21	
atisfaction with school life	Very satisfied	21(16.2)	2.28 ± 0.83	91.48 ± 44.50	2.25 (.068)	67.00 ± 10.77	2.13 (.081)	37.62 ± 8.87	1.45 (.223)
	Satisfied	59(45.4)		90.86 ± 32.16		63.25 ± 6.55		41.00 ± 8.04	
	usual	44(33.8)		98.70 ± 35.19		61.16 ± 10.14		42.30 ± 9.24	
	Unsatisfied	4(3.1)		144.50 ± 43.01		57.75 ± 7.37		45.25 ± 1.26	
	Very unsatisfied	2(1.5)		95.00 ± 62.26		57.50 ± 16.26		36.50 ± 14.85	
Grades	4.0 ≥ ^a	39(30.0)	1.76 ± 0.55	90.69 ± 41.65	0.57 (.57)	65.10 ± 9.41	2.68 (.073)	38.85 ± 8.43	4.26 (.016) c>a
	3.0~4.0 ^b	83(63.8)		96.72 ± 34.13		62.34 ± 8.50		41.24 ± 8.65	
	<3.0 ^c	8(6.2)		103.50 ± 39.54		57.88 ± 9.28		48.25 ± 5.29	
Career Hope	Tertiary Hospital	100(76.9)	1.30 ± 0.64	93.31 ± 38.42	0.77 (.511)	63.54 ± 9.31	0.83 (.478)	40.22 ± 8.65	1.61 (.190)
	General Hospital	25(19.2)		101.28 ± 28.72		60.44 ± 6.34		44.16 ± 8.23	
	clinic	1(0.8)		138.00		60.00		45.00	
	Other	4(3.1)		98.00 ± 40.42		62.75 ± 13.89		38.25 ± 9.07	
Health Status	Very good ^a	38(29.2)	2.05 ± 0.86	80.26 ± 36.10	4.01 (.009)	66.95 ± 8.81	4.89 (.003)	38.00 ± 9.32	2.73 (.047)
	Good ^b	53(40.8)		96.75 ± 33.58		62.09 ± 7.70		41.25 ± 7.59	
	Usual ^c	33(25.4)		108.67 ± 36.94		60.70 ± 8.49		43.67 ± 8.76	
	Bad ^d	6(4.6)		104.83 ± 40.64		56.33 ± 13.95		42.17 ± 8.20	

3.4 대상자의 주관적 체형인식, 외모만족도, 취업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주관적 체형 인식, 외모 만족도, 취업 스트레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주관적 체형인식과 취업스트레스는 $r=.37(p<.001)$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외모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는 $r=-.38(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Subjective perception of body,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and Employment Stress

(N=130)			
	Subjective perception of body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Employment Stress
Subjective perception of body	1.00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56 ($<.001$)	1.00	
Employment Stress	.37 ($<.001$)	-.38 ($<.001$)	1.00

3.5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관적 체형인식과 외모 만족도가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취업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고, 주관적 체형인식, 외모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가정을 검증한 결과 Dubin-Watson 통계량은 1.87로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 검증에서는 공차가 .69, 분산팽창지수가 1.4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였다. ($F=14.19, p<.00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Employment Stress (N=130)

Variables	Employment Stress				
	B	SE	β	t	p
Constant	51.10	7.33		6.97	$<.001$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24	.09	-.25	-2.62	.010
Subjective perception of body	.06	.02	.23	2.40	.018

$R^2=.18, \text{ Adjusted } R^2=.270, F=24.19, p<.001$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주관적 체형인식($\beta=0.23, p=.018$), 외모만족도($\beta=-0.25, p=.010$)가 취업스트레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총 설명력은 27%이었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체형인식과 외모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적 특성, 주관적 체형인식, 외모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주관적 체형인식, 외모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포함한 상태에서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주관적 체형인식은 평균 95.33 (± 36.72)점이 나왔으며 외모만족도는 62.89(± 8.94)점으로 간호대학생으로 한 Lee[12]의 연구에서 평균 57.24 점에 비해 다소 높게 나왔다. 취업스트레스는 40.95(± 8.65)으로 지방 도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Kim[13]의 연구에서 40.69(± 9.83)점으로 비슷하게 나왔다. 취업스트레스를 보고한 연구에서 Lee[12]은 대체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취업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Cho 등[24]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외모 요인이 영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본 연구와 일치함을 보였다. 본 연구는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하는 대학생들에서는 취업과 관련된 외모만족도와 주관적 체형인식이 연령과 학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취업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관적 체형인식은 건강상태가 '나쁘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몸의 평형이 깨어져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향이라고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상태가 좋으면 우리 신체는 효과적인 적응력과 힘을 가지게 됨으로써 동적이고 보다 좋은 방향으로 조정이 되는 상태를 가지게 되어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는 전공 만족도, 학점, 건강 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전공 만족도는 '불만족'이, 학점은 '3.0 미만'이, 건강 상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취업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oi 등[5]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은 학업과 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스트레스가 학업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성적이 낮은 그룹이 높은 그룹보다 취업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일치하는 결과이다. 학년에 따른 차이는 3학년이 가장 취업 스트레스가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나 본 연구에서는 2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기에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학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체형인식, 외모만족도, 취업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취업 스트레스는 주관적 체형인식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외모만족도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를 덜 경험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취업스트레스와 외모만족도가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힌 Kim & Kang[14]의 연구와 같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관적 체형인식과 취업스트레스는 정적 상관관계 $r=.23(p=.018)$ 가 있다고 나타나 주관적 체형인식과 취업스트레스의 상관계수는 $r=-.34(p<.001)$ 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선행연구[22]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도 외모만족도가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관련된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외모만족도가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외모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K 대학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선형 회귀분석에서 단계 선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주관적 체형인식은 $\beta=0.23(p=.018)$ 로, 외모만족도는 $\beta=-0.25(p=.010)$ 로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 [1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Choi[33] 연구에서

는 외모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와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에서도 외모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에 있어 취업면접이 중요해지면서 외모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상관성이 높아지면서 간호대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Han & Park[15]의 연구에서는 외모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에서는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아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를 통해 외모만족도 및 주관적 체형인식이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외모만족도 및 주관적 체형인식을 높일 수 있는 통합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은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 지역 일개 개학 간호학과 2학년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 표집에 한계점이 있고, 일부 지역에서 연구되어 전체 간호대학생을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체형 인식과 외모 만족도가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경북 소재 K 대학교 2학년 간호 대학생 130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주관적 체형인식($\beta=0.23, p=.018$), 외모만족도($\beta=-0.25, p=.010$)가 취업스트레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총 설명력은 27%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감소를 목표로 하는 통합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이 긍정적 주관적 체형인식을 높이고, 외모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추후에는 다른 변수와 취업스트레스 사이의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S. A. Yang, "Convergence influencing factors on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Information*, Vol. No.4, pp.171-183, 2017. DOI: <http://doi.org/10.22156/CS4SMB.2017.7.4.171>
- [2] Y .R. Kang. *The impact of employment stress on the career maturity of dance student*, Unpublished M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pp.1-84, 2006.
- [3] M. H. Choe, J. H. Kim, E. S. Nam, Y. M. Lee, J. H. Hwang, M. K. Lee, S. J. Yoon, & H. J. Park, "Factors affecting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4, No.2, pp.122-131, 2015.
- [4] A. Y. Noh.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ress, depression, self-esteem, and physic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tudent Life Research*, Vol.33, pp.85-101.
- [5] M. H. Choi, J. H. Kim, E. S. Nam, Y. M. Lee, J. H. Hwang, M. K. Lee, S. J. Yoon, & H. J. Park,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4, No.2, pp.122-131, 2015. DOI: <http://doi.org/10.5807/kjoh.2015.24.2.122>
- [6] E. K. Ahn,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on senior nursing students' job seeking stress-perspectives of converg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6, pp.365-372, 2018. DOI: <http://doi.org/10.15207/JKCS.2018.9.6.365>
- [7] M. Y. Park, T. H. Kim.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job anxiety, and job stres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Conference*, Vol.10, PP.343-343, 2013.
- [8] H. S. Park, Y. J. Bae, S. Y. Jeong. "A study on nursing students'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Journal of Psychiatric Nursing*, Vol.11, No.4, pp 621-631. 2002.
- [9] S. H. Choi, H. Y. Lee, "Factors affecting college students' employment stress: Focusing on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xiety, and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3, No.12, pp. 808-816, 2013.
- [10] K. S. Shin, I. J. Cho, "A study on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job search skills,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n employment stress", *Social Science Research*, Vol.29, No.3, pp.143-160, 2013.
- [11] Y. S. Kim, H. J. Lee,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elf-esteem, appearance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on employment stress" *Journal of Arts, Humanities and Social Convergence Multimedia*, Vol.9, No.6, pp. 411-420, 2019. DOI: <http://doi.org/10.35873/aimahs.2019.9.6.039>
- [12] I. S. Lee, "A study on nursing students'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depression, and employment stress",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3, No.5, pp.2487-2500, 2011.
- [13] H. J. Kim, *Relationships among employment stress, depression, anxiety and physical symptom in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pp. 1-34, 2004.
- [14] K. N. Kim, E. H. Kang.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self-esteem, appearance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on employment stre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y-Academia-Technology*, Vol.21, No.3, pp.80-88, 2020.
- [15] S. H. Han, S. H. Park,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rts, Humanities and Social Convergence Multimedia*, Vol.9, No.2, pp.675-686, 2019. DOI: <https://doi.org/10.35873/aimahs.2019.9.2.066>
- [16] S. Grogan, S. "Body Image: Understanding body dissatisfaction in men, women, and children. 2nd ed ".Routledge, London, pp.3-4, 2007.
- [17] S. S. Gong, "A study on symptoms and depression of general women and women with eating disorders", *Soonchunhyang University Medical School Journal*, Vol.10, No.3, pp. 2031-2038, 2004.
- [18] K. H. Hong, "The influence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BMI on body image and body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Industry*, Vol.8, No.1, PP.48-54, 2006.
- [19] J. F. Saunders, A. A. Eaton, "Snaps, selfies, and shares: How three popular social media platforms contribute to the sociocultural model of disordered eating among young women", *Cyber psychology, Behavior, & Social Networking*, Vol.21, No.6, PP.343-354, 2018. DOI: <https://doi.org/10.1089/cyber.2017.0713>
- [20] L. H. Clarke, M. Griffin, PACC Research Team, "Failingbodies: Body image and multiple chronic conditions in later life",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18, No.8, PP.1084-1995, 2008. DOI: <https://doi.org/10.1177/1049732308320113>
- [21] M. B. Schwartz, K. D. Brownell, "Obesity and body image", *Body Image*, Vol.1, No.1, PP.43-56, 2004. DOI: [https://doi.org/10.1016/S1740-1445\(03\)00007-X](https://doi.org/10.1016/S1740-1445(03)00007-X)
- [22] H. S. Jeong,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type perception and self-esteem and job anxiety among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book University, Daegu, Korea, pp.1-47, 2015.
- [23] H. J. Kim, "Effect of aroma massage on physiological index, depression, and appearance interest in middle-aged women with abdominal obes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esthetics*, Vol.15, No.4, pp.1261-1270, 2009.
- [24] M. K. Cho, E. J. Choi, J. W. Lee, Y. N. Lee, J. Y. Chae, "Correlations in appearance, job-seeking stress and job-seeking anxiety in undergraduates according to

gender difference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10, No.2, pp.141-150, 2013.

- [25] H. J. Lee, Y. S. Kim.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elf-esteem, appearance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on employment stress." *Journal of Arts, Humanities and Social Convergence Multimedia*, Vol.9, No.6, pp.411-420, 2019.
- [26]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2007). G*POWER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 175-191.
- [27] E. J. Cho, J. A., Kim, J. Y. Kim, H. J. Kim, E. S. Ra & H. Y. Lee. (2016),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Convergence of Culture and Technology*, Vol.2, No.1, pp35-43.
- [28] P.I. Cooper, M. J. Taylor, Z. Cooper. & C. G. Fairbur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body shap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Eating Disorder*, Vol.6, pp.485-494.
DOI: [https://doi.org/10.1002/1098-108X\(198707\)6:4<485::AID-EAT2260060405>3.0.CO;2-O](https://doi.org/10.1002/1098-108X(198707)6:4<485::AID-EAT2260060405>3.0.CO;2-O)
- [29] B. K. Mendelson, M. I. Mendelson, D. R. White, "A Body-esteem scale for adolescents and adults", *J Pers Assess*, Vol.76. No.1, pp.90-106.
DOI: https://doi:10.1207/S15327752IPA7601_6.PMID:11206302
- [30] G. O. Shim,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ppearance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chool adap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Kyungki, Korea, pp.1-62, 2007.
- [31] H. K. Kim,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Mediating effect of lifestyle attitude", *Journal of Health and Medical Industry*, Vol.14, No.2, pp.105-115.
DOI: <https://doi.org/10.12811/kshsm.2020.14.2.105>
- [32] E. S. Jeong, *The control and moderating effect of perfection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al thoughts in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angwon, Korea, pp.1-73, 2011.
- [33] S. H. Choi,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ego resilience, appearance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on employment stre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y-Academia-Technology*, Vol.20, No.3, pp.386-393,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3.386>

양 지 원(Ji-Won Yang)

[정회원]



- 2013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8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경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 스트레스